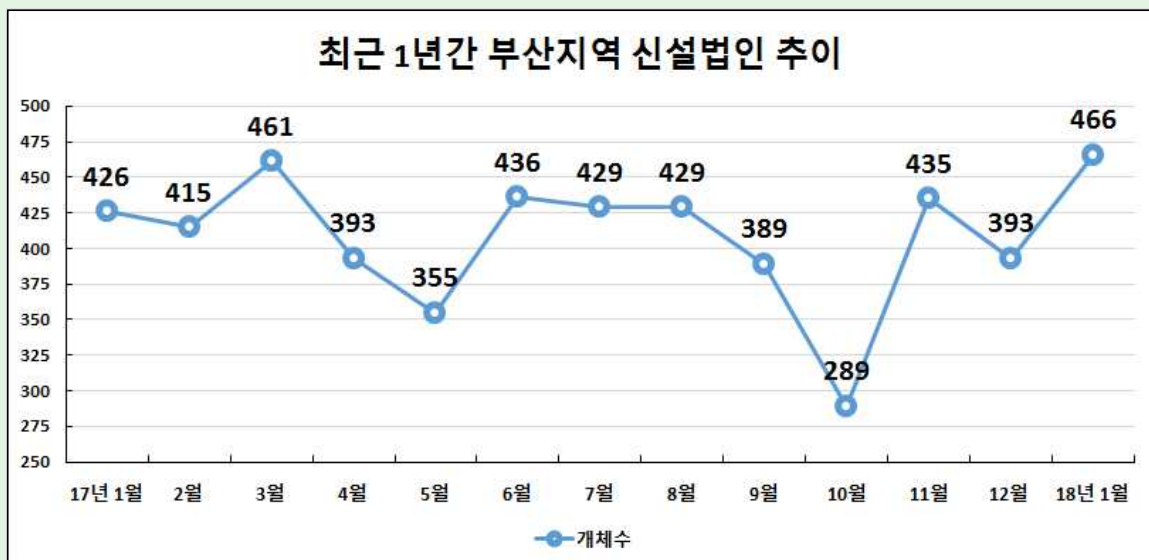


2018년 1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조사

【 요 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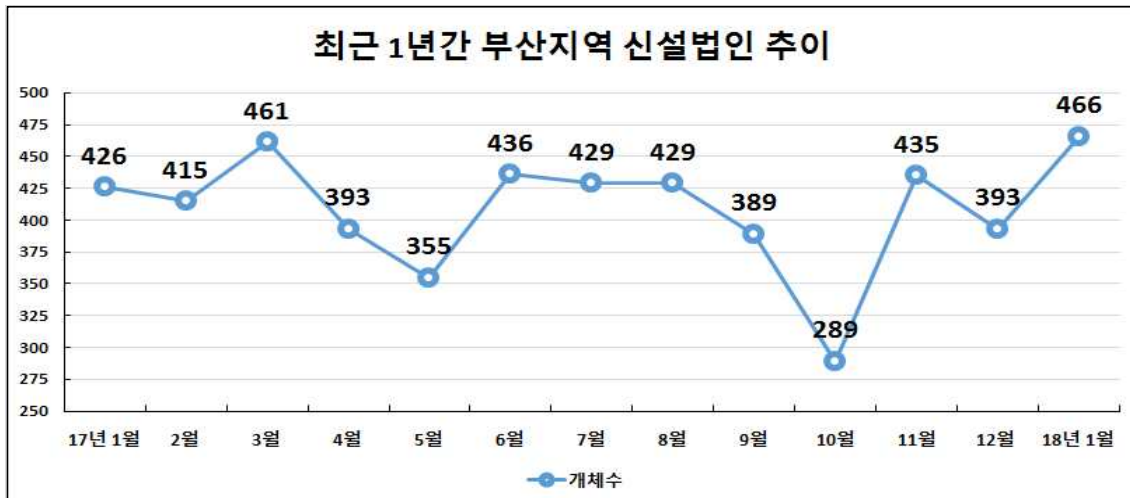
- 2018년 1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 : 466개체
(전년동월의 426개체 대비 9.4% 증가, 전월의 393개체 대비 18.6% 증가)
- 1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분양 시장 침체와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유통 채널의 변화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유통업에서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신산업에 대한 관심고조 등에 따라 창업심리가 회복되면서 제조업과 운수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늘어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통업이 104개체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서비스업 86개체(18.5%), 제조업 70개체(15.0%), 건설업 62개체 (13.3%),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 53개체(11.4%), 정보통신업 30개체(6.4%), 운수업 17개체 (3.6%), 기타 44개체(9.4%) 등으로 집계
- 자본금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가 322개체(69.1%)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4개체(15.9%), 3억원 이상 44개체(9.4%),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1개체 (4.5%), 5천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5개체(1.1%) 등으로 집계



1. 신설법인 현황

□ 2018년 1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 : 466개체

- 전년동월 426개체 대비 9.4% 증가, 전월의 393개체 대비 18.6% 증가
- 1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분양 시장의 침체와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유통 채널의 변화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유통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신산업에 대한 관심고조 등에 따라 창업심리가 회복되면서 제조업과 운수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늘어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2. 업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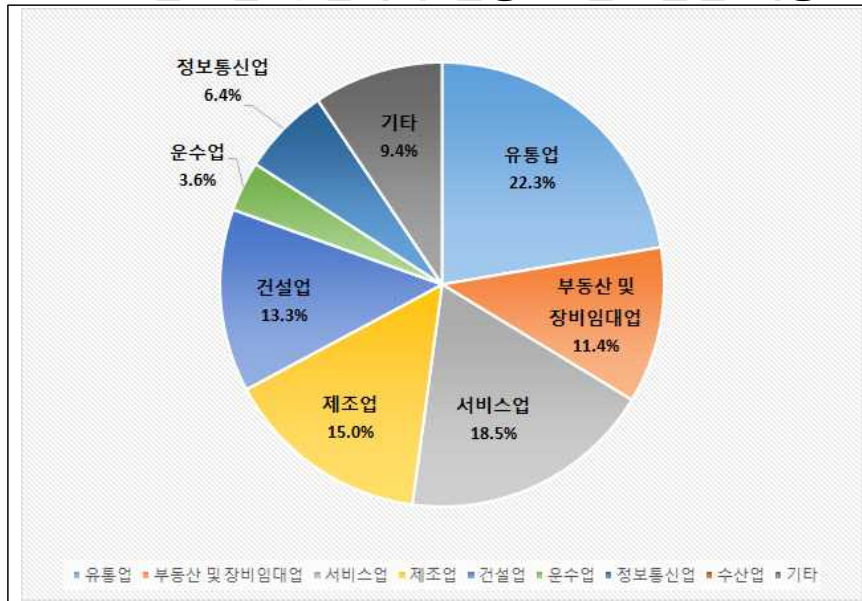
□ 1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466개체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통업이 104개체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이어 서비스업 86개체(18.5%), 제조업 70개체(15.0%), 건설업 62개체(13.3%),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 53개체(11.4%), 정보통신업 30개체(6.4%), 운수업 17개체(3.6%), 기타 44개체(9.4%) 등으로 집계

□ 1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의 업종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업이 전년동월대비 66.7%로 가장 크게 증가 (전년동월의 18개체 대비 12개체 증가)

- 이어, 운수업(30.8%), 제조업(27.3%), 서비스업(10.3%), 기타(144.4%) 등에서 증가
- 반면, 건설업(△15.1%), 유통업(△9.6%),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5.4%) 등에서 감소

〈2018년 1월 부산지역 업종별 신설법인 비중〉



3. 주요 업종별 세부 현황

□ 「유통업」은 전년동월 115개체 대비 11개체(△9.6%) 감소한 104개체

- 유통업은 지역 경기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각종 건축용 및 산업용 자재 수요가 감소, 온라인으로의 유통채널 이동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비스업」은 전년동월의 78개체 대비 8개체(10.3%) 증가한 86개체

- 각종 인력알선 및 건물관리 등 용역(15개체), 고용·수출·재무 등 경영컨설팅(14개체), 보험·대부 관련 금융(12개체), 광고·기획(9개체), 여행(9개체), 교육(8개체), 연구개발(6개체) 등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전년동월의 55개체 대비 15개체(15.0%) 증가한 70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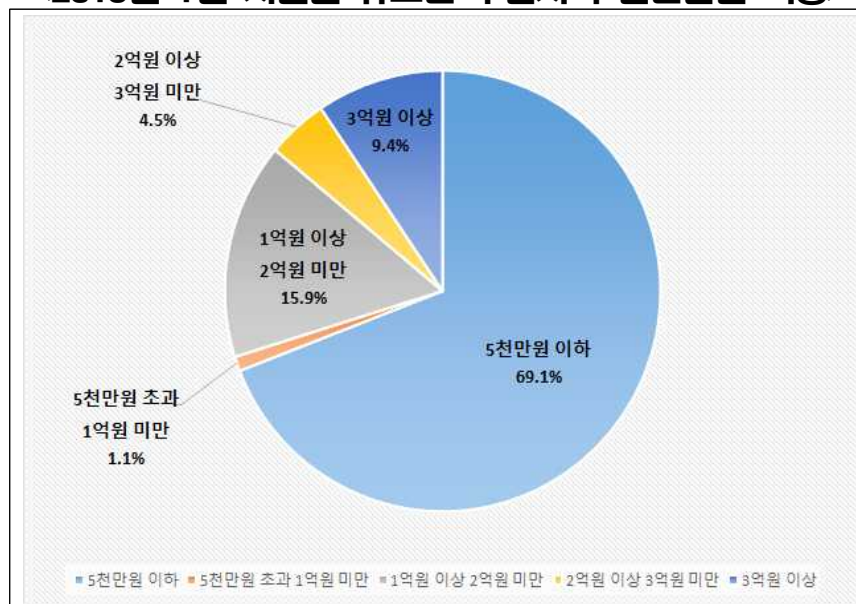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신발·가죽·가방(△42.9%) 화학·고무·플라스틱(△28.6%), 기타제조업(△75.0%)에서 감소했으나, 음식료품(83.3%), 기계·금속·철강·전자·전기(58.1%)에서 증가
- 기계·금속·철강·전자·전기 분야는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각종 철강제품과 산업용 기계 분야에서 신설법인이 늘었으나, 완성차 업계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업황 둔화가 지속된 자동차부품 분야의 신설법인은 1개체(△8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은 전년동월의 73개체 대비 11개체(△15.1%) 감소한 62개체
 -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지역 분양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지역 내 공공 발주 감소, 지역업체의 저조한 하도급 참여율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정보통신업」은 전년동월의 18개체 대비 12개체(66.7%) 증가한 30개체
 - 정보통신업은 각종 신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로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개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화폐, 게임 개발 등의 창업이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운수업」은 전년동월의 13개체 대비 4개체(30.8%) 증가한 17개체
 - 수출입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해운 및 육상운송 관련 신설법인 증가

4. 자본금 규모별 현황

- 자본금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가 322개체(69.1%)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4개체(15.9%), 3억원 이상 44개체(9.4%),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1개체(4.5%), 5천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5개체(1.1%) 등으로 집계

〈2018년 1월 자본금 규모별 부산지역 신설법인 비중〉



- 자본금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생계형 신설법인은 전년동월의 281개체 대비 41개체(14.6%) 증가한 322개체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통업 78개체, 서비스업 64개체, 제조업 46개체,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 44개체, 정보통신업 25개체, 건설업 21개체, 운수업 8개체, 기타 36개체 등으로 나타남

2018년 1월중 신설법인 현황

(단위 : 개체,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륜	
		1월	12월	누계	1월 (당월)	비중	전월비	전년 동월비
합	계	426	393	4,850	466	..	18.6	9.4
산업 별	수 산 업	0	0	9	0	0.0	..	..
	음 · 식 료 품	6	3	71	11	2.4	266.7	83.3
	섬 유 · 신 발 · 가 방 · 가 족	7	4	67	4	0.9	0.0	△42.9
	화 학 · 고 무 · 플 라 스 틱	7	7	71	5	1.1	△28.6	△28.6
	기 계 · 금 속 · 철 강 · 전 자 전 기	31	42	411	49	10.5	16.7	58.1
	(자 동 차 부 품)	(7)	(2)	(41)	(1)	(0.2)	△50.0	△85.7
	기 타 제 조 업	4	8	70	1	0.2	△87.5	△75.0
	소 계	55	64	690	70	15.0	9.4	27.3
	건 설 업	73	45	673	62	13.3	37.8	△15.1
	유 통 업	115	91	1,164	104	22.3	14.3	△9.6
	운 수 업	13	17	180	17	3.6	0.0	30.8
	정 보 통 신 업	18	15	246	30	6.4	100.0	66.7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	56	68	718	53	11.4	△22.1	△5.4
	서 비 스 업	78	67	870	86	18.5	28.4	10.3
	기 타	18	26	300	44	9.4	69.2	144.4
자 본 금 규 모 별	5 천 만 원 이 하	281	280	3,377	322	69.1	15.0	14.6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	5	4	71	5	1.1	25.0	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60	47	654	74	15.9	57.4	23.3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7	20	237	21	4.5	5.0	△22.2
	3 억 원 이 상	53	42	511	44	9.4	4.8	△17.0